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이혼 후 힘들게 세 아이를 키워 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활근무를 하면서 적금도 들고, 자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난과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에게 멋진 어머니가 되고 싶어 방통대 교육학과를 다니며 사회복지사와 건강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빈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월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자 비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생사도 모르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갑자기 거래은행 압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저 모르게 어머니가 카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갚지 않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활급여는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가고, 월세는 6개월이나 밀렸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집주인도 오래 기다려줬지만 결국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사건 앞에 희망마저 빼앗기고 비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낼 집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니 눈앞이 캄캄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립을 도와주셨던 구청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아산재단을 연결해주셔서 곧 밀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 곳이 생기니 마음이 안정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다시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재단이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영 드림

